

■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창작오페라 분야) 심사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사분과 :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창작오페라 분야)
-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 2024년 5월 14일(화) 11:00 ~ 13:00 / 아르코미술관 위원회의실
- 심사위원명(가나다순) : 김재희, 류경선, 손수연, 이재진, 최우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 공모사업은 각 분야의 우수한 작품을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아울러 동시대성과 다양성을 갖춘 창작자의 발굴 및 소개를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공모사업 중 창작오페라 분야에서는 행정 결격을 제외한 총 5건이 심사 대상으로, 1차 전수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들이 모여 2차 대면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창작오페라 분야에 있어 이번 심의의 중요한 평가 기준은 작품의 예술성과 작품의 무대화 가능성으로 나뉩니다. 지원 작품이 주제와 소재 측면에서 타 작품과 차별화될 만큼 창의적이며, 우수하다고 평가하는지, 음악과 대본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 수 있는지 등을 중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무대에서 재현될 경우, 무대화가 적합한지, 많은 수정을 거치지 않고도 완성도 있는 공연 제작이 가능한 작품인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들은 심층 토의 후, 각 심의위원별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개별 심사에서는 대본과 시놉시스, 악보, 음원 등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지원 작품들이 오페라로서 적합한 대본 구성과 음악적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업의 특성은 창작오페라 분야의 우수 대본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인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수월성 있는 동시대 우리 오페라를 무대화하는 것이라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안타깝게도 이번 공모에 지원한 5건 중 선정된 작품이 한 편도 없음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례적이라 심의위원들 또한 많은 고심 끝에 내린 판단이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창작오페라로 지칭되는 동시대 한국오페라는 순수 예술분야 중에서도 비인기 장르로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의미한 작품과 창작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원작 5건은 모두 위에 제시한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선정작이 없었던 주요한 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전문 오페라 대본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대본의 문제점입니다. 각 작품마다의 차이는 있으나, 5건 모두 제출된 시놉시스에 비해 구성과 줄거리가 일관되지 않아 맥락을 연결시키기가 어려웠습니

다. 그러한 연유로, 확실한 캐릭터 구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결하지 않은 대사와 쉽게 부를 수 없는 노랫말 등 오페라라고 보기에는 장르의 정체성이 모호한 대본들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둘째, 제출된 악보로 미뤄보면, 음악적인 부분이 더욱 보강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워지지 않은 화성이나 개성이 부족한 멜로디 라인, 뒷부분으로 갈수록 섬세함이 필요한 악곡들이 함께 제출된 대본과 결합했을 때, 최선의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5건 모두 많은 수정 과정을 거쳐서라도, 오페라로써 실제 무대화가 가능한 작품들을 끝까지 고민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이 심의위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이번 공모 심의에서 공통으로 눈에 띄는 현상 중 하나는, 5건의 대본 모두 소재 선택과 구성 측면에서 동시대가 공감할 만한 정서에서 다소 멀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가치나 혁신을 보여주는 참신함과 오페라 대본으로써 형식적 완성도도 미약했음입니다. 음악 역시 대본과 비슷한 평가로 작품의 무대화는 뒤로하더라도 창작오페라 분야의 장르적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혹시 창작 오페라 분야와 관련하여 십여 년간 지속되어 온 관행적 작품 선정 방식에 기인한 안이한 태도가 아닌지 이번 심의의원 전원은 우선적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원 대상뿐만 아닌 현재 창작오페라와 관련한 모든 이들이 우리 오페라를 창작하는 것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문제의식이 필요함을 통감하고, 유례가 없는 이 상황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오페라 분야 공모사업에 올해와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임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이 사업을 통해 동시대의 정신과 감성을 담은 수준 높은 한국오페라들이 많이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창작오페라 분야) 심사위원 일동